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 나흔날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나흔날**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나흔날**

완성된 이름

**나흔날**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나흔날**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넷째 날.

요약 연대표

| 표기  | 16세기 | 17세기 | 19세기 | 20세기 | 현재 |
|-----|------|------|------|------|----|
| 나흔날 | -    | -    | -    | -    | -  |
| 나흔날 | -    | -    | -    | -    | -  |
| 나흔날 | -    | -    | -    | -    | -  |
| 나흔날 | -    | -    | -    | -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넷째 날.

문헌의 첫 기록

16세기

수록 용례

8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 우리가 알고있는 '나흔날'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넷째 날.

## ☞ 나흔날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나흔날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 표기 · 근거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20세기 |
|------------------------|------|------|------|------|------|------|
| <b>나흔날</b><br>사전 표기 요약 | —    | ●→   | ●→   | —    | —    | —    |
| <b>나흔날</b><br>사전 표기 요약 | —    | —    | ●→   | —    | ●→   | ●→   |
| <b>나흔날</b><br>사전 표기 요약 | —    | —    | —    | —    | —    | ●→   |
| <b>나훗날</b><br>문헌 수록 표기 | —    | —    | —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4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나흔날  
16세기17세기
- 나흔날

17세기19세기20세기

- 나흔날

20세기현재

- 나훗날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나흔날, 나흔날, 나훗날, 나흔날

## ↳ 나흔날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나흔날’의 옛말인 ‘나흔날’은 16세기부터 나타난다.

### ↳ 말의 구성과 어원

‘나흔날’은 나흔을 뜻하는 명사 ‘나흔’과 관형격 조사 ‘나’와 날을 뜻하는 명사 ‘날’이 결합한 것이다.

### ㄴ 표기와 소리의 특징

‘나흔날’은 ㄴ의 영향으로 ‘흔’의 ㄹ이 탈락하고 ‘날’의 첫소리 ‘ㄴ’의 영향으로 ㄴ이 ‘ㄴ’이 되었다. 17세기에는 16세기 이후 나타난 제2음절 이하의 ‘·’가 ‘—’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나흔날’과 ‘나흔날’이 함께 나타난다. 20세기에는 ‘나흔날, 나훗날, 나흔날’이 함께 나타나는데 ‘나흔날’로 표기가 통일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 📖 문헌 속의 나흔날

전체 용례 8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 16세기 나훈날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나훈날

출처 16세기 후반 순천김씨묘출토언간 9

용례 01

66 문헌 용례

나훈날사 드러오나를 도히 이시니 깃거후노라.

현대어 풀이

나훈날이라야 들어오거늘 좋게 있으니 기뻐한다.

## 17세기 나훈날, 나훈날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나훈날, 나훈날

출처 1632 가례언해 7:14ㄱ

용례 02

66 문헌 용례

나훈날 아츰 成服하기를 쏘 ㄱ티 하며.

현대어 풀이

나훈날 아침에 성복하기를 또 같이 하며.

출처 17세기 전반 진주하씨묘출토언간 75

용례 03

66 문헌 용례

예서 나훈날로 의성으로 가리로쇠.

현대어 풀이

여기에서 나훈날로 의성으로 가겠습니다.

출처 17세기 진성이씨이동표가언간 7

용례 04

66 문헌 용례

어마님씩셔도 쾌차티 못후여 겨시매 나흔날 제수의논 못 가고.

現代어 풀이

어머님께서도 쾌차하지 못하여 계시므로 나흔날 제사에는 못 가고.

## 19세기 나흔날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나흔날

출처 1897 주교요지 38ㄱ

용례 05

66 문헌 용례

나흔날은 히와 돌과 별을 문두샤 주야와 절후를 눈호게 후시고.

現代어 풀이

넋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어 주야와 계절을 나누게 하시고.

## 20세기 나흔날, 나훔날, 나흔날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나흔날, 나훔날, 나흔날

출처 1921 동아일보 4월 5일 3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만일 나흔날에도 이 재조를 안이하면 관직들은 큰 소동을 이르킬 형세임으로.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3 조선일보 6월 4일 조간 2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비가 개인 후에는 치워져 나훔날 북조선 고원 지방에는 자 넘는 눈이 오는 등 괴상한 일기이였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용례 08

66 문헌 용례

나훔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 나훔날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http://history.wordrow.kr) · [나훔날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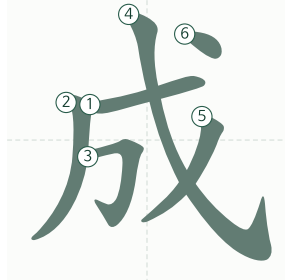
##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 成

뜻·음 이룰 성

총 7획 · 부수 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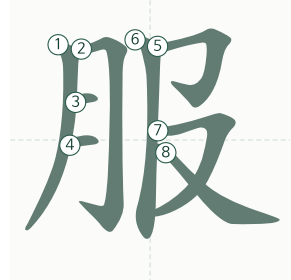
사전 7획 · 획순 그림 6획

[hanja.wordrow.kr/한자/成/](http://hanja.wordrow.kr/한자/成/)

# 服

뜻·음 옷 복

총 8획 · 부수 月



[hanja.wordrow.kr/한자/服/](http://hanja.wordrow.kr/한자/服/)